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성과보고회

바이오진흥원, 올해 사업성과 공유·네트워킹 통한 사업 효과 증진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일자리 참여·협력기업의 2024년 사업성과 공유 및 수혜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혜기업 13개사 관계자, 익산시청,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품 경쟁력 강화, 매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술사업

화, R&D,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모듈형 지원 시스템

을 통해 올해 제품개발 7건, 품질 향상 6건, 홍보 및 판로지원 5건 총 18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에스시디디(주)는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도시락집 포장 규격 생산을 위한 전용 포장 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익산형 일자리 참여·협력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사업의 연계 활성화와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익산시 농업과 식품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JB고객님과 5대5대 특판 예금'

전북은행, 창립 55주년 기념 31일까지 증액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앞서 출시했던 'JB고객님과 5대5대 특판예금' 판매 한도를 오는 31일까지 증액 판매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 20일 만에 판매한도 3,000억원의 특판예금이 조기소진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1,000억원 증액해 판매한다.

이번 'JB고객님과 5대5대 특판예금'은 6개월에 최고 연 3.42%(기본금리 연 3.22%), 12개월에 최고 연 3.22%(기본금리 연 3.02%) 금리를 제공하며,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20억원 한도이다.

/이만호 기자



또한 개인고객은 해당 예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우대금리 연 0.2%, 법인고객은 해당 예금 가입고객 전원에게 우대금리 연 0.2%가 제공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전북은행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한국자동차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모빌리티 충전분야 네트워크 구축... 전기차 충전 안전성 확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원주군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기차 배터리·충전시설 관련 △안전기술 개발 공동사업 추진 △합동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제공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 △상호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안전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인프라의 첨단 안



전 기술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협력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충전 안전 기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가 전기차·충전 인프라 안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송호석 환경청장, 익산 왕궁 매입측사 철거현장 안전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6일 익산 왕궁 매입측사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철거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철거공사는 매입측사 부지의 생태복원을 위해 17개 축사를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축사 철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인근 주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송호석 청장은 현장을 돌아보며 본격적인 공사 전 개인보호구의 적정 구비, 비산먼지·소음 저감조치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철거 시 공사 관계자에게 "겨울철 작업자의 미끄럼 사고 등 위험요인 체크,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지난 4일 무주 소재 사업장 풀무원다논(주)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4대 금지' 캠페인 핵심 안전수칙 전파

노동부 전주-안전보건공단 전북,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지난 4일 무주 소재 사업장 풀무원다논(주)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풀무원다논(주)에서 작업장 내 끼임 및 부딪힘 등 산업재해 취약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와 함께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했다.

4대 금지 캠페인의 핵심 안전수칙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명순 본부장은 "이번 4대금지 캠페인을 통해 핵심 안전수칙을 자율적으로 수립·실천하여 재해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어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철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행동